

# 2021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 • 4교시 탐구 영역 •

#### [윤리와 사상]

1	5	2	3	3	4	4	3	5	2
6	4	7	1	8	3	9	1	10	5
11	2	12	1	13	1	14	2	15	1
16	2	17	5	18	4	19	4	20	5

**1. [출제의도] 목자의 평화 사상 이해하기**

가장 편지를 쓴 사상은 목자이다. 목자는 전쟁이 가져오는 불이익을 강조하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비공(非攻)을 주장하였다. 또한 천하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차별 없이 사랑(兼愛)하고 이로우며 나누어야(交利) 한다고 보았다.

**2. [출제의도] 듀이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듀이의 주장이다. 듀이는 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 성장, 개선, 진보의 과정이 의미 있다고 보고,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덕적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주희, 율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하늘의 이치(天理)는 사물과 사람에게 모두 부여되어 있으므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 나아가 한다고 보았다. 왕수인은 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心即理)이므로 마음 밖에는 어떠한 이치나 사물도 없다고 보았다. 한편 주희와 왕수인은 공통적으로 도덕적 알(知)과 도덕적 실천(行)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혜능과 지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혜능, 율은 지눌이다. 혜능은 사람이 누구나 자성(自性)을 직관하면 단박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돈오(頓悟)를 주장하였다. 지눌은 돈오 이후에도 남아 있는 습기(習氣)를 제거하기 위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소크라테스, 율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악덕을 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아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악덕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통적으로 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6. [출제의도] 흠과 벤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흠, 율은 벤담이다. 흠은 도덕적 구별이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감정에 의존한다고 보았고, 감정이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라고 주장하였다. 벤담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라고 보았다.

**7.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맹자, 율은 순자이다. 맹자는 선천적으로 지닌 선한 마음인 사단(四端)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므로 성현(聖賢)의 가르침에 따라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맹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누구나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키르케고르, 율은 사르트르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신 앞에 홀로 서서 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할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 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벌린과 페뮈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자유주의 사상이 벌린, 율은 공화주의 사상이 페뮈이다. 벌린은 외부의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인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였다. 페뮈는 타인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인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10. [출제의도] 아퀴나스와 스피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아퀴나스, 율은 스피노자이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신의 섭리인 영원법에 근거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은 이성으로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정념의 연속에서 벗어나 참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이성적 관조를 통해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적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아퀴나스와 스피노자는 공통적으로 인간은 이성적 인식을 통해 신의 섭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이이와 이황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이이, 율은 이황이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것'으로 보아,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한다(理氣互發)고 보아,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기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12.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嗜好)이라고 보았다. 또한 정약용은 이이와 이황과는 달리 사덕(四德)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四端)의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케인스, 율은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시장 실패로 초래된 실업 문제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하이에크는 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이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보고,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스토아학파, 에피쿠로스,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스토아학파 사상이, 율은 에피쿠로스, 병은 밀이다. 스토아학파 사상은 이성을 따름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없는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쾌락의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에피쿠로스는 스토아학파와 달리 평온한 삶에 이르기 위해 공격적인 삶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유토피아와 공산 사회 비교하기**

같은 모어, 율은 마르크스이다. 모어의 유토피아는 소유와 생산이 평등하고 재화가 풍족해 결핍의 염려에서 벗어난 사회이다. 마르크스의 공산 사회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여 인간 각자가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가 소멸한 공산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개

인들이 자발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6.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칸트의 주장이다. 칸트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즉 어떤 것이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에 근거한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보고, 행위의 옳음은 그 행위를 낳는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원불교와 증산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원불교의 박종빈, 율은 증산교의 강일순이다. 원불교는 일원상(一圓相)을 신앙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靈肉雙全) 한다고 본다. 증산교는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갖 원한들을 풀어 없애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한편 원불교와 증산교는 공통적으로 현세에서 지상 낙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18.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플라톤의 주장이다. 플라톤은 정의로운 인간이 되려면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의로운 국가에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절제의 덕을 지니고 있고,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한다고 주장하였다.

**19. [출제의도] 로크와 루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로크, 율은 루소이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존재하고 이 법이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대행한다고 보았다. 한편 로크와 루소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본래부터 부여된 자연권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공자와 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공자, 율은 노자이다. 공자는 인(仁)의 회복을 통해 사회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자는 백성을 무위(無爲)로써 다스려야 하며, 본래 인간이 지닌 소박함을 유지하려면 인의(仁義)를 버려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자의 입장에 비해 노자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무위의 다스림[無爲之治]을 강조하는 정도(X)는 높고, 시비선악(是非善惡)의 분별을 강조하는 정도(Y)와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정도(Z)는 낮다.